

난재문집(難齋文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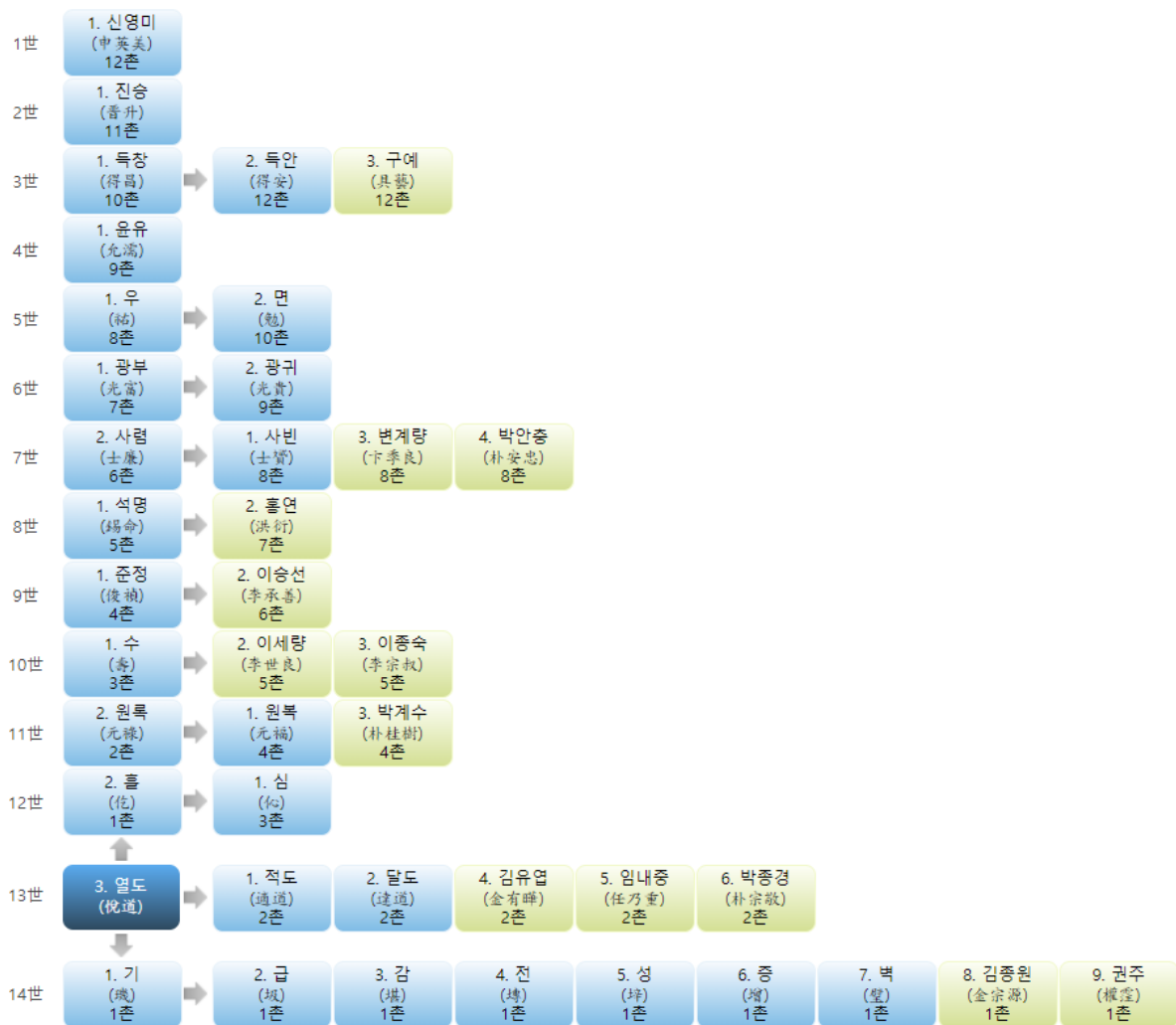
신열도 (申悅道)

가계도

13世 열도(悅道)

父 : 흘(屹) 祖父 : 원록(元祿)

읍파(邑派)난재공파(難齋公派)



신열도(申悅道)

항목 ID	GC05200843
한자	申悅道
분야	역사/전통 시대, 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문무 관인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이광우

[상세정보]

출생 시기/일시	1589년 - 신열도 출생
활동 시기/일시	1606년 - 신열도 진사시에 급제
활동 시기/일시	1624년 - 신열도 증광 문과에 급제
활동 시기/일시	1647년 - 신열도 사헌부 장령에 임명
몰년 시기/일시	1659년 - 신열도 사망
추모 시기/일시	1858년 - 신열도 의성 단구 서원에 배향
출생지	신열도 출생지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묘소 단소	신열도 묘소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사당 배향지	단구 서원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분토리
성격	문신
성별	남
본관	아주(鵝洲)
대표 관직	능주 목사

[정의]

조선 후기 의성 출신의 문신.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자(字)는 진보(晉甫), 호는 나재(懶齋). 신준정(申俊禎)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신수(申壽)이며 아버지는 신흘(申屹)이고, 어머니는 순천 박씨(順天 朴氏)로 박윤(朴倫)의 딸이며, 부인은 문소 김씨(聞韶 金氏)로 김굉(金泓)의 딸이다.

[활동 사항]

신열도(申悅道)[1589~1659]는 장현광(張顯光)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606년(선조 39) 진사가 되고, 1624년(인조 2) 증광(增廣) 문과(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에서 관직을 시작하였다. 1625년에 박사(博士), 전적, 기사관을 지내고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강화도로 인조를 호종하였다. 그는 형들과 더불어 호란 당시 척화(斥和)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화의론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1628년 형조 좌랑(刑曹 佐郎)이 되었으며, 동지사(冬至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 뒤 예조(禮曹)·병조(兵曹)·호조(戶曹)의 좌랑(佐郎)을 두루 지내고, 1630년 지제교(知製敎), 1636년 성균관 직강(成均館 直講), 병조 정랑(兵曹 正郎), 사간원 정언(司諫院 正言)을 지냈다.

병자호란 이 일어나자 인조를 호종하여 남한산성에 들어갔다. 병자호란 때에도 화의론을 강력히 비난하며 동지들과 상소를 올려 끝까지 항쟁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의병을 모집하는 격문(檄文)을 초안하여 도내에 포고하고, 각 고을마다 의병을 모아 해서 부원수(海西 副元帥)의 진(陣)으로 보냈다.

이듬해 전란이 끝나자 고향으로 내려왔다가, 1638년(인조 16) 울진 현령(蔚珍 縣令)으로 나아가 민생에 대해 극언하였는데, 인조는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1645년 공조·병조의 정랑(正郎)에 제수고, 1647년 장령(掌令)을 거쳐 1649년 예천 군수(醴泉 郡守)로 나아갔다가 1652년(효종 3) 장령을 지냈으며, 다시 능주 목사(綾州 牧使)를 지냈다.

1655년 사간(司諫), 성균관 사성(成均館 司成), 종부시 정(宗簿寺 正)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으며, 이때부터 고향에서 두문불출하며 병환을 다스렸다.

[학문과 저술]

문집으로는 『나재집(懶齋集)』 9권 4책이 있으며, 『선사지(仙槎志)』와 『문소지(聞韶志)』 등도 편찬하였다. 『문소지』는 스승인 장현광의 권유로 편찬한 의성현의 읍지이다.

[묘소]

묘는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에 있다.

[상훈과 추모]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분토리에 위치한 단구 서원(丹邱 書院)에 배향되었다.

[참고문헌]

『인조 실록(仁祖 實錄)』

『나재집(懶齋集)』

『의성의 전통』(의성 문화원, 1982)

『의성 군지』(의성 군지 편찬 위원회, 1998)

『고문서 집성-의성 아주 신씨 오봉 가문·호계 가문편』 77(한국학 중앙 연구원, 2005)

장필기, 「조선 후기 의성 아주 신씨가의 가계 이력과 향촌 재지 기반 -의성 아주신씨 음파·구파의 고문서 검토를 중심으로」(『한국 사학회』 88, 2007)

생애이야기

- **성명** : 신열도(申悅道), 1589년 ~ 1659년
- **본관** : 아주(鵝洲)
- **자** : 진보(晉甫)
- **호** : 난재(懶齋)
- **출생지** : 의성군
- **출신지** : 의성군
- **분묘지** : 의성군 오토산(五土山)
- **입사경로** : 1624년 증광시(增廣試) 을과 급제
- **내관직** : 승문원부정자(承文院副正字), 박사(博士),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 **외관직** : 경성판관(鏡城判官), 울진현령(蔚珍縣令), 예천군수(醴泉郡守), 능주목사(綾州牧使)
- **조용한 성품**

신열도의 천성은 순수하여 생각에 막힘이나 인색함이 한 점도 없었고, 털끝만큼의 거친 기상도

없었다. 집안에서 거처할 때 효성스러움과 우애심이 독실하였고, 제사를 받드는 것에도 그 정성과 공경을 다하였다. 마을에 거처할 때는 남에게 진실하면서도 베풀고 양보하여 미덥고 순함이 상하에 드러났다.

조정에 들어가서는 편안하고 고요하게 스스로를 지키고 구차히 함께하여 잘못 따르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고을을 다스리는 데에 이르러서는 교화를 핵심으로 삼아 학문을 흥기시키는데 솔선하였다.

◦ 구휼의 방책을 건의하다.

1647년 수재와 한재로 인해 굶어죽는 백성들이 속출하자 신열도(申悅道)는 굶주린 백성을 위하여 임금에게 상소하기를,

“이번 수재와 한재를 만나 굶어 죽는 백성이 많으니 마땅히 현재 호조·남한(南漢)·강도(江都)에 있는 미곡의 수효와 삼남(三南)의 감영(監營)·병영(兵營) 및 통영(統營)에 저축된 미곡과 포목의 수효가 얼마인가를 총괄해서 계산하고,

또 1년의 경비 및 외국 사신에 필요한 불시의 수요가 얼마인가를 총괄해서 계산하여 종류대로 모아 연구해서, 만약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히 지탱할 수 있으면 금년의 부세(賦稅)를 모두 탕감하고 만약 혹 이 숫자에 모자라면 여러 도 가운데 아주 실농하지 않은 곳에서 절반의 세금을 거두어 1년 경비를 지탱한다면 공물을 전부 감하니 해아려 감하니 하는 등의 구구한 말을 할 필요 없이 온 나라 백성들이 균등하게 은택을 입어 생기가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가족이야기

- 조 : 신원록(申元祿)
- 생부 : 신흘(申屹)
- 모 : 순천(順天) 박씨(朴氏) 박윤(朴倫)의 딸
- 형제 : 신달도(申達道), 신적도(申適道)

◦ 집안 이력

아주(鵝洲) 신씨(申氏)의 시조는 고려 때 권지호장(權知戶長)을 지낸 영미(英美)이다. 대표적 인물은 우(祐)인데, 그는 충혜왕 때 전라도 안렴사(按廉使)를 지냈으며, 지극한 효자로서 경상북도 의성(義城)에 정문과 효자비가 세워졌다.

조선시대에 크게 벼슬을 한 사람은 없으나 학자와 효행으로 이름난 사람이 많다. 우의 6대손 원록(元祿)은 성리학을 연구한 학자로서 효행이 뛰어나 효자정문이 세워졌고, 그의 손자 3형제 중 적도(適道)는 정묘호란 때 의병을 일으키고 찰방(察訪)을 지냈는데, 역시 학문과 효행이 뛰어났다. 달도(達道)는 삼사(三司)를 역임하고 장령(掌令)을 지냈으며, 정묘호란 때 척화(斥和)를 주장하였다.

◦ 효자로 이름 조부 신원록

신원록은 11 세에 부친이 중풍에 걸려 치료가 어렵자, 팔공산에 올라가 손수 약초를 캐서 유능한 의원의 조제를 받아 밤낮으로 끓여 올렸다.

무릇 8 년 동안이나 밤을 지새워가며 부친을 정성껏 간호하였다. 신원록은 모친이 90 세가 되도록 의복이나 번기를 남에게 맡기지 않고 손수 세탁하였고, 똥을 맛보아 증세를 판단하였으며, 밤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등 갖은 정성을 다하여 봉양하였다.

같은 해 6 월 모친이 93 세로 돌아가시자 날마다 성묘를 하고, 미음만 마시고 다른 것은 입에 가까이하지 않아 결국 여막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이후 1590 년 향인들이 신원록의 행적을 적어 고을 수령에게 올리므로 인해 조정에 알려지게 되었다. 1600 년에 향인들이 다시 글을 올려 을묘년(1615)에 정려(旌閭)가 내려졌으며 아울러 호조참의에 추증되고 『속삼강행실(續三綱行實)』에 그의 효행사적이 실리게 되었다.

학문이야기

◦ 스승 : 장현광(張顯光)

◦ 학파 : 퇴계 학파

◦ 스승 : 장현광(張顯光)

◦ 학파 : 퇴계 학파

◦ 큰 재주를 지니다

신열도는 9 세 때 이미 경전과 역사에 통달했고 글을 잘 지었다. 인재(訥齋) 최현(崔峴)이 항상 그의 재주를 작게 이루어지는 데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 칭찬했다. 17 세 때 도(道)의 도회(都會)에서 뽑혀 18 세에 진사(進仕)에 합격했다.

◦ 스승의 품모를 흠모하다.

1603 년 스승 장현광이 의성으로 부임해왔다. 선생은 명륜당(明倫堂)에 앉아서 제생들과 상읍례(相揖禮)를 행하시고는 훈장(訓長)과 제생들은 차례로 앞줄에 앉히고 아이들은 또 그 다음 줄에 앉힌 다음, 이들과 경전(經傳)의 뜻을 강론하였다.

제생 중에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선생은 반복하여 가르쳐 주었으며 질문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대답하였는바, 말소리가 크고 통창(通暢)하시어 온 좌중이 경청하였다.

신열도는 어린 나이로 책을 끼고 맨 말석(末席)에 앉아 있었는데, 선생을 우러러보니 기상(氣象)이 혼후(渾厚)하고 위의(威儀)가 엄정(嚴整)하여 자기도 모르게 숙연(肅然)하여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게 되었다.

1622년 봄에 신열도는 신달도와 함께 남산으로 와서 스승을 뵈고, 저녁에는 모시고 부지암(不知巖)으로 가서 이틀 동안 머물러 모시면서『근사록(近思錄)』의 의심스러운 부분 10여 조항을 질문하였다.

◦ 스승의 건강을 염려하다.

신열도는 스승인 장현광이 안거(安車)로 부르는 명령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달려가 뵈었는데, 스승이 여러 친구들이 전별(餞別)함으로 인하여 연일 술을 드셨다.

이에 신열도는

“식사는 적게 하시면서 술을 너무 많이 드시니, 혹 이로 인하여 건강이 손상될까 두렵습니다. 이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스승이

“술의 힘이 노인을 보양함은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과 같아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대의 말이 또한 좋으니, 내 마땅히 유념하겠다.”고 말하였다.

저작이야기

◦ 나재문집(懶齋文集)

『나재문집』은 의성지방의 학자 신열도(申悅道)가 지은 시문집이다. 목판본으로 9권 4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 1은 시 127수가 실려 있다.

권 2는 교지(教旨), 사제문(賜祭文), 소(疏), 계(啓)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무인응지소(戊寅應旨疏)」는 울진현령(蔚珍縣令)으로 있을 때 왕명에 따라 올린 보고서로, 흉년이 계속되어 주민의 생활이 어려우므로 세금을 경감하여줄 것과 부역을 줄이며 고을재정에 국고보조를 하여줄 것을 요청한 내용이다.

「청물건신사일자핵계(請勿遣信使仍自劾啓)」는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강화를 위하여 사신을 보내기로 결정한 조정의 공의에 반대하여 강화사신을 보내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다.

권 3은「조천시문건사건계(朝天時聞見事件啓)」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1628년(인조 6) 동지사은사의 서장관이 되어 7월 11일 서울을 출발하여 명나라의 남경까지 갔다가 이듬해 윤 4월 11일 평양에 돌아올 때까지 도중에서 보고들은 일들과 중국 사람들과 통화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보고한 여행기록이다.

권 4는 정문(呈文)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정등주군문변무문(呈登州軍門辨誣文)」은 등주에 주둔하고 있는 명나라 군대에 잘못 전달되어 명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오해가 생긴 일에 대하여 사실을 밝힌 외교적인 문서이다.

권 5는

장현광(張顯光)·심지원(沈之源)·김세렴(金世濂)·김응조(金應祖)·김치관(金致寬)·김경장(金慶長)등

당대의 학자들과 주고받은 편지로 구성되어 있다.

권 6은 장현광(張顯光)에게 입문의 예를 마치고 가르침을 받은 내용을

기록한 「배문록(拜門錄)」과 자기의 사상과 취지를 밝힌 「나재설(懶齋說)」의 잡저와 각종 서발(序跋), 그리고 상량문(上樑文), 축문(祝文), 제문(祭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 7은 각종 제문과 묘표(墓表)로 구성되어 있다.

권 8은 행장, 권 9는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선사지 仙槎志』와 『문소지 聞韶志』 등이 있다.

서지사항

서지내용	
서명	난재문집 (難齋文集)
저자	성명 신열도 (申悅道)
	자 진보 (晉甫)
	호 난재 (難齋)
판사항	木版本
발행지	
발행자	
발행년	17세기
권수	9
책크기	19.5×28.5 cm
사부분류	별집류
기타사항	

해제

『난재문집』은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인 신열도(申悅道 ; 1589~1659)의 시문집이다. 신열도의 본관은 아주(鵝州), 자는 진보(晉甫), 호는 난재(懶齋)이다. 흘(?)의 아들이며, 교리 달도(達道)의 동생이다. 장현광(張顯光)의 문인이다.

문집 가운데 권1~3에 시 127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대체로 기상이 호방하나 감상적인 면이 있다. 그 가운데 「등소공대(登召公臺)」는 소공대에 올라서 탁 트인 경치를 바라보는 상쾌한 기분을 읊은 것이고, 「야문실술유감(夜聞??有感)」은 밤에 우는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가을의 정취속에서

인생의 무상을 한탄한 것이다. 「문노적동창야불능매(聞奴賊東?夜不能寐)」는 청나라가 침입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느라고 잠 못 이루는 안타까운 심회를 읊은 것이다. 소(疏) 가운데 「무인응지소(戊寅應旨疏)」는 울진현령(蔚珍縣令)으로 있을 때 왕명에 따라 올린 보고서로, 흉년이 계속되어 주민의 생활이 어려우므로 세금을 경감하여줄 것과 부역을 줄이며 고을 재정에 국고보조를 하여줄 것을 요청한 내용이다. 계 가운데 「청물견신사잉자핵계(請勿遣信使仍自劾啓)」는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강화를 위하여 사신을 보내기로 결정한 조정의 공의에 반대하여 강화사신을 보내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고, 「조천시문견사건계(朝天時間見事件啓)」는 1628년(인조 6) 동지사은사의 서장관이 되어 7월 11일 서울을 출발하여 명나라의 남경까지 갔다가 이듬해 윤 4월 11일 평양에 돌아올 때까지 도중에서 보고들은 일들과 중국사람들과 통화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보고한 여행기록이다. 「정등주군문변무문(呈登州軍門辨誣文)」은 등주에 주둔하고 있는 명나라 군대에 잘못 전달되어 명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오해가 생긴 일에 대하여 사실을 밝힌 외교적인 문서이다. 이밖에 장현광(張顯光)에게 입문의 예를 마치고 가르침을 받은 내용을 기록한 「배문록(拜門錄)」과 자기의 사상과 취지를 밝힌 「난재설(懶齋說)」이 있고, 중국에 사신으로 가다가 중도에 해난을 당한 사신을 제사한 「제표사신문(祭漂使臣文)」이 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10여세에 경사(經史)에 통하여 1624년(인조 2)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 1627년 정묘호란 때에 인조를 호종하였다. 이듬해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뒤 예조정랑, 정언을 거쳐 1638년 울진현감을 지내고 1647년 장령이 되어 민생에 대하여 상소하였고 뒤에 능주목사를 지냈다.

책목록

조선 시대 나재(懶齋) 신열도(申悅道, 1589~1659)의 문집이다. 본집은 가장초고를 바탕으로 수집·편차하여 19세기에 목판으로 간행된 초간본으로 그 간행경위는 분명하지 않다. 본집은 9권 4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권마다 목록이 있다.

권1은 시로, 서장관으로 부경할 때 상사 송극인(宋克訥)과 수창한 시 및 사행 중 각처에서 소회를 읊은 시가 가장 많다.

권2는 교서, 사제문, 소, 계이다. 그중에서 <청물견신사잉자핵계(請勿遣信使仍自劾啓)>에서는 강화사신을 보내지 말 것을 주장한 정온(鄭蘊)을 옹호하고 간관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자신의 체직을 청하였다.

권3은 <조천시문견사건계(朝天時間見事件啓)>로, 서장관이 되어 1628년 7월 11일 사조하고 해로로 부경하여 평양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정을 자세히 기록하여 왕에게 보고한 것이다.

권4는 명(明)나라의 도독 모문룡(毛文龍), 등주 군문, 예부(禮部)에 올린 정문(呈文)이고

권5는 서(書)이고,

권6은 잡저, 서(序), 발(跋), 상량문, 축문이고

권7은 제문과 묘표지이다.

권8은 행장이고,

권9는 부록으로 정종로(鄭宗魯)가 지은 행장과 김응조(金應祖)가 지은 묘지가 있다.

나재집(懶齋集)

懶齋先生文集卷之一

詩

白雲洞次李汝純 韻

金烏書院。敬次旅軒先生韻。

謹次冶隱先生集中韻

謹次趙龍門 贈別先王考韻。奉餞趙上舍殷輅 世兄。

敬次仲氏 韻

以歲晚何以黔吾突。分韻詠懷。奉呈伯 ， 仲氏求和。

奉次金荷潭 見寄韻

到陶巖舊庄。感懷有作。呈伯仲氏。

偕任李諸友遊冰溪

綠野亭。次金東籬 韻。

次金藏菴 韻

次金以直 韻

奉呈金忘窩 丹城觀行

贈別金孝徵 赴洛

輓宗丈梧峯公

輓洪西潭

輓外舅金公

重過星山舊橋。感而有作。

丁卯春。自江都赴關東幕。過昭陽亭次板上韻。

登召公臺

清澗亭次板上韻

贈別申都事汝涉

丹陽奉別洪使君

奉次仲氏歸去來曲

輓李察訪

輓趙司果

戊辰七月。以冬至使書狀官赴京。夜泊龜岸。次許都事春容 寄葡萄韻。

舟過清風。次主倅洪景澤 韻。

宿驪州清心樓

夜泊廣鹿島偶吟

夜聞蟋蟀有感

泊平島憶仲氏

次李學官 韻

九日泊沙門島有感

登鼉磯島。次上使宋公 韻。

舟中憶金孝徵諸友

萊州途中

過晏平仲故里

過孔文學甘棠牌門

過伯夷廟

過王裒故里

過細柳營

過董子故里

過易水

十月初八日達上京

聞奴賊東搶。夜不能寐。

十一日朝參。次上使韻。

連夜夢陪先君子。感而有作。

冬至晝夢。被仲氏喚起。覺後吟成一律。

二十七日。參冬至賀班。用前韻。

元日次上使韻

次老杜韻。奉呈上使令公。

拈圃隱集中韻。奉呈上使令公。

初二日夜夢。拜放軒先生。仍成一絕。

仲春望夜獨坐口占

詠壺魚

謁國子監

往天壇

長相思

謝陳，韓兩序班。惠詩與扇。

歸路登蓬萊閣

濟河縣值雨

到大井店後口占

到甌山縣。次板上韻。

敬亭李公輓

訪金孝徵不遇

次李虞卿韻

元朝有感。次仲氏除夕韻。

寄洪無住

贈鄭靜而

輓權參判

輓洪處士

輓金持平

次金仲亨 韻

次金松隱萬年松韻

輓李持平復初

登侍中臺

高山館。次李芝峯 韻。

贈別鄭評事

登磨天嶺

渡夕陽橋

留城津

沃原阻雨。次板上韻。

輓柳教官

輓金察訪

輓洪都事

輓蒼石李公

輓同知宗丈

飛山松亭。祇候旅軒先生。

敬次旅軒先生行中五言詩

次張經叔 韻却寄

用前韻奉呈金梅園

次清陰金相公 贈別詩

輓金藏菴

輓崔完海

旅軒先生輓

伊院次諸友贈別韻

登泣嶺

登觀魚臺

季秋詠月

輓李上舍

貢稅浦別金以直

輓訥齋崔公

次蒼石韻贈別李子長

用前韻。慰金司書賈之 失火。

輓金溪巖

輓柳應教

丹丘幽居

輓金梅園

輓睦監司

輓俞參議

輓李紫巖

次李壽翁 洛阜亭韻

輓梧峯夫人

甲午除夕

輓柳監司

輓張晚悔

丁酉冬至夜吟

次權子正 自樂堂韻

又次子正天雲臺韻

輓裴君

輓鄭晉州

己亥正月夜夢。吟清風明月是故人之句。覺後足成一絕。

懶齋先生文集卷之二

教

教江原監司朴遜書

教黃海監司李曼書

賜祭文

賜祭漢南君李必榮文

賜祭刑曹參判李民奐文

疏

戊寅應旨疏

辭掌令疏

乞護兄喪疏

甲申應旨疏

啓

請收趙贊，申恟補外之命啓。

請收清風郡守權徹已梟示之命啓

請沔川郡守吳達天罷職啓

請沔川郡守吳達天罷職啓[再啓]

請遣御史查出貪婪守令啓

避嫌啓

請統制使金應晦推考啓

請勿遣信使。仍自劾啓。

在開城府啓

在椴島啓

懶齋先生文集卷之三

啓

朝天時間見事件啓

懶齋先生文集卷之四

呈文

呈毛都督文

呈登州軍門文

呈登州軍門辨誣文

呈毛都督請禁查官督押船隻員役文

呈提督請勿查還登州留置員役土物文

呈禮部請勿改貢路文

呈禮部辨誣文

呈禮部請免上下馬宴文

懶齋先生文集卷之五

書

上旅軒先生

上旅軒先生問目

上旅軒先生

上旅軒先生問目

上旅軒先生

上旅軒先生問目

上沈相國

答沈判書

與金安邊

上崔訥齋

與金梅園

答金梅園

答金梅園

與金溪巖

答金以承

答金以承

答金孝徵

答金孝徵

答金而栗

答張經叔

答張經叔

與金子亮，金汝涵。

與金德承

答金受而，權宅甫。

答金受而

答鄭亦顏

與金重玉

答雷伴送

答莊提督

寄機兒

寄機兒

寄坂兒

寄諸兒

寄博，埤兩兒。

寄埤兒

雜著

拜門錄

懶齋說

序

送黃子由 奉使日本序

送申通判望久 赴完山序

送金以直歸觀宣城序

跋

書旅軒先生贈言後

書順天朴氏譜牒後

仙槎誌跋

蔚珍鄉約跋

聞韶誌跋

先王考梅堂先生師友錄跋

奉先祭儀圖式後識

上梁文

東洛書院上梁文

鏡光書院上梁文

聞韶客舍上梁文

葛山精舍上梁文

祝文

竹邊祠祈雨文

三方山龍淵祈雨文

祭漂海使臣文

祭大海神文

祭天妃神文

祭三山島神文

洛峯書院奉安文

吳山書院告由文

東洛書院奉安文

涑水書院告由孫月城君文

蒙泉祠常享祝文

祭立巖山神文

懶齋先生文集卷之七

祭文

祭寒岡先生文

祭旅軒先生文

祭宗丈梧峯公文

祭敬亭李公文

祭訥齋崔公文

祭柳修巖文

祭金忘窩文

祭崔完海文

祭金龜巖 文

祭張晚悔文

祭趙司果文

祭仲氏晚悟公文

祭淑人金氏文

祭亡子機文

祭亡子堪文

祭南格菴 墓文

祭朱孝子 墓文

墓表誌

先考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城隱府君墓表

先妣贈淑夫人順天朴氏墓誌

仲氏晚悟公墓誌

從兄處士公墓誌

淑人聞韶金氏墓誌

亡子機壙記

懶齋先生文集卷之八

行狀

敬亭李公行狀

伯祖靜隱公行狀

仲氏晚悟公行狀

紫巖李公行狀

懶齋先生文集卷之九

附錄

行狀[鄭宗魯]

墓誌[金應祖]